

# 시민 아비투스의 실천행동, 기부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길\*

최 혜 지

(서울여자대학교)

## [요 약]

이 연구는 기부라는 사회적 행위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조명해 온 선행연구의 공리주의적 전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브리디외의 사회적 장의 이론과 아비투스 이론을 토대로, 기부라는 사회적 행위는 시민사회가 사회적 장 내에 형성하고 유산한 시민됨의 아비투스가 발현된 실천행위라고 가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KGSS 2011년 자료를 이용해 시민됨과 기부행동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상정한 구조모형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모형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시민됨의 요소 중 시민덕목과 시민참여는 기부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됨의 수준이 높을수록 즉 시민으로서 아비투스 구성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이의 실천행동인 기부행동 또한 적극적임을 의미하며, 기부가 시민됨의 아비투스가 발현된 실천행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기부, 시민, 사회적 장, 아비투스, 브리디외

## 1. 문제제기

기부는 지배적으로 공리주의적 사유체계를 통해 이해되어 왔다. 인간행동을 경제적 유익에 토대한 합리적 선택으로 설명하는 공리주의는 기부 또한 비용과 효과를 견주고 가능한 합리적 행동으로 조명

\* 이 논문은 아름다운 재단의 2015년 기획연구 지원을 받았음.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이 논문의 일부는 아름다운 재단의 2015기획연구보고회에서 발표됨.

한다. 즉 공리주의의 틀 내에서 기부는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이 충돌하고 상보하는 의식적 사고의 결과이다.

공리주의적 사유에 포섭된 선행연구들은 행위자 개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기부를 조망한다. 미시적 특성에 몰두한 이들 연구는 기부행동을 사회문화적 상위체계로부터 고립시켜 설명한다. 그런데 인간 행동은 행위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구조에 반응하고 이를 반동해 내는 구조적 종속성을 갖는다. 특히 기부는 개인의 경계 밖에 있는 외부사회를 향한 행위이다. 따라서 기부행동을 상위체계와 분리해 이해하는 기존 접근은 명확한 한계를 갖는다.

물론 공리주의적 합리성을 전제한 선행연구가 행위자의 미시적 특성을 버리고 기부를 의미 있게 설명해 왔다는 평가에 인색할 이유는 없다. 이들 연구는 살림 사는 형편, 인구사회적 특성 등 지각반응의 외적 요인과 이기심, 이타심 등 지각반응의 내적요인을 중심으로 기부의 결정요인을 짚진해 왔다(김용준, 김주원, 2005). 그런데 기부자의 합리적 선택을 결정할 것으로 가정된 이들 요인이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기부와 역동하거나 기부와 독립된 관계를 보이는 연구결과가 누적되어 왔다(강철희 외, 2011; Wiepking, 2005). 한 예로, 일부 연구에서 경제적 자원은 기부행동과 비선형적 연계를 보이거나 오히려 부적 연계를 보였다(강철희, 2011). 세제감면이라는 경제적 보상, 자기만족이라는 이기심은 기부행동과 관계가 없거나 제한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기도 했다.

합리성에 기댄 이론적 가정과 실증적 결과 사이의 이 같은 탈각은 기부행동을 조율하는 미시특성의 영향이 기부라는 사회적 행위에 굴절되어 나타남을 의미한다. 동시에 기부행동을 의식적 사고와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조망한 이론적 전제의 균열을 시사한다.

기부자 특성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굴절과 기부행동의 합리성에 대한 전제의 허약성은 기부연구에서 브르디외의 사유가 지닌 이론적 유용성을 시사한다. 브르디외는 사회적 장의 이론과 아비투스 이론을 통해 인간행동은 경제적 교환성에 기반한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시각에 반기하고자 했다(김천기, 2007).

브르디외(1984)에 의하면 사회적 장(setting)은 사회경제적 자본에 따라 위치가 결정되는 지위공간이다. 인접한 공간에 포진된 구성원은 지위에 적합한 규범과 인식체계를 생산하고 내재화 한다. 규범과 인식체계는 세대를 거듭해 공유되고 마음의 습속, 아비투스를 구성한다. 사회적 장의 아비투스는 경제적 지위 등 외적 조건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재구조화 한다. 이처럼 브르디외 이론은 미시적 특성이 기부행동에 갖는 영향력이 인간행동의 합리성에 기초한 가정과 어긋나는 이유를 외적 조건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사회적 장의 기능으로부터 채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징체계를 통해 공유된 사회구조를 내재화 한 아비투스는 사회적 장을 외현화한 것이며 동시에 사회적 장의 규범을 결정한다(Bourdieu, 1994a). 인간행동은 아비투스에 스며있는 사회적 장의 준거가 무의식적으로 발현된 것이다. 따라서 브르디외에게 인간행동은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읽히지 않는다. 이와 같이 브르디외의 아비투스는 인간행동의 합리성을 전제로 기부를 설명할 때 발생하는 이론적 가정과 실증적 결과 간의 균열을 조정하는 이론적 도구를 제공한다.

시민은 인간다운 존엄을 요구할 권리를 지닌 사회적 존재이다. 적극적 의미에서 시민은 공동체의 선을 위해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사회정치적 주체이다. 또한 시민은 자아의 경계를 공동체로 확대해

사적 이익을 초월한 공동체 지향성을 내재화 한 도덕적 존재이다(이동수, 2008; 장은주 외, 2014). 시민사회라는 사회적 장에서 인접한 공간에 위치한 개인은 유사한 시민 정체성을 공유한다. 시민됨의 규범을 자기정체성의 일부로 내재화하며 이에 조우하는 가치와 행동, 아비투스를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는 자아의 경계를 공동체로 넓힌 확장된 자아를 향한 선행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기부는 공동체 이익을 선으로 지향하는 것을 자기정체성의 일부로 내재화 한 시민의 아비투스가 발현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기부연구의 한계와 부르디외 이론의 유용성을 배경으로, 이 연구는 부르디외의 사회적 장과 아비투스 이론에 기대어 기부를 사회적 장인 시민사회의 아비투스가 발현된 실천행동으로 가정하고, 시민됨의 아비투스와 기부행동 사이의 인과구조를 분석하고자 했다. 아비투스를 축으로 기부를 설명함으로써 기부행동의 합리성을 전제로 사회구조적 영향력의 진공상태에서 기부를 설명해 온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

##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모형

### 1) 부르디외의 장 이론과 아비투스

부르디외는 실천행동을 경제, 사회, 문화자본의 결합체와 아비투스가 사회적 장에 더해진 결과로 이해한다<sup>1)</sup>. 이 같은 부르디외의 사유는 실천행동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관통하는 거대 원칙이다. 따라서 모든 실천행동은 경제, 사회, 문화자본에 의해 결정된 사회적 장 내에서의 위치와 그 위치가 외현화 된 아비투스로 회귀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Bourdieu, 1994b). 다음에서는 사회적 장의 특성에 기초해 시민사회가 사회적 장임을 설명하고, 시민됨은 시민사회가 구성해 낸 아비투스이며, 기부는 시민됨의 아비투스가 외현화 된 실천행동임을 이론적으로 설명했다.

#### (1) 사회적 장으로서 시민사회

부르디외의 사회적 장 이론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사회학적 해석과정에서 정립되었다. 사회적 공간으로서 장은 현대사회의 진화과정에서 분화된 다양한 사회적 영역으로 고유한 법칙, 차별적 이익과 관심을 지닌 자율적인 소세계를 의미한다(Bourdieu, 1994a). 사회적 장은 경제, 사회, 문화자본이 구성한 사회적 구조와 상징체계를 가교하는 매개물이라는 점에서 이론적 중요성을 갖는다. 사회적 장의 매개적 성격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반영한 차별적 규범과 기능을 지닌 장의 자율성에 기초한다. 사회적 장은 경제계급을 비롯한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재해석하는 기능을 갖는다(Bourdieu, 1984).

사회적 장에서 위치에 대한 사유는 부르디외 장 이론의 중심 주제이다. 사회적 장에서 위치는 관찰 가능한 개관적 사회조건이 규정한 지각과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Bourdieu, 1994b: 196). 사회적 장 내

1) [(자본)(아비투스)]+장=실천행동 (Bourdieu, 1994b: 196).

에서 행위자는 하나의 위치를 점유하게 되며, 위치는 장에 속한 행위자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의 동력으로 기능한다. 특히, 사회적 장에서 위치는 행위자의 정당성 근거로 작동하기 때문에 행위자들은 장 내부의 지위공간에 집착하게 된다(Bourdieu, 1984).

사회적 장은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갖는다. 우선 장은 자본의 분포가 위치로 구조화된 사회적 공간이기 때문에 사회적 장의 구조는 자본을 향한 행위자들 사이의 역동관계와 투쟁의 역사를 투영한다. 사회적 장은 투쟁의 공간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기득권을 무기로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무력화하려는 기층 지배자와 진입 장벽을 와해하고 장으로의 착륙을 이루어내려는 진입자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장의 본질이다. 끝으로 사회적 장의 행위자들은 선취물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형성한다. 투쟁하고 획득해야 할 선취물의 가치에 대해 동의하며 이를 재생산한다(Bourdieu, 1984). 사회적 장에서 행위자는 하나의 좌표로 존재하며 행위자의 좌표는 하나의 시각을 의미한다(Bourieu, 1994b).

시민사회는 시공간적 동시성을 지닌 행위자에 의해 시민됨의 문화를 규정하고 재생산하는 독자적 영역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한 개인이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시민사회는 시민됨의 문화를 구조화하고 재생산하는 기구이다. 시민사회는 ‘위치가 구조화된 공간’이라는 사회적 장의 특성을 갖는다. 시민이라는 명칭을 부여 받았으나 행위자마다 시민사회 내에서 점하는 위치는 상이하다. 미국 시민사회 내에서 백인 문화를 지닌 시민과 유색인 문화를 지닌 시민 사이에 문화자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지위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은 시민사회가 ‘위치가 구조화된 공간’이라는 장의 첫 번째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민사회는 투쟁의 장이다. 시민의 권리는 누구에게도 지켜내야 할 권리이고 누구에게 획득해야 할 권리이다. 어떤 조건을 지닌 이주민에게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것인가는 국가마다 해묵은 정치적 쟁점이다. 선주민은 시민으로 누려온 기득권이 다른 행위자에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 이주민은 시민의 권리를 획득하고 시민사회로 편입되기 위해 투쟁을 기꺼이 수용한다. 시민사회 내에서 투쟁하는 행위자들은 시민으로 향유하는 권리와 시민문화의 가치를 규정하고 재생산한다. 사회적 장으로서 시민사회는 기부행동의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를 가교한다. 따라서 경제적 수준 등 개인의 미시적 속성은 기부문화라는 거시적 구조에 온전히 투영되기보다 시민사회라는 매개를 거치면서 굴절되게 된다.

## (2) 아비투스로서 시민됨

아비투스는 사회적 장 내에서 행위자의 위치에 적합한 것으로 기대되는 인식과 행동양식의 추상적 체계를 의미한다. 아비투스는 사회적 장 내에서 “개인의 위치가 갖는 내재적이고 관계적인 특징”을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원리이며 집단과 집단을 구별하는 행동의 생성원리이다(Bourdieu, 1994b: 23). 즉 아비투스는 사회적 장의 구조가 외현화된 것이며 동시에 사회적 장의 규범과 구조를 규정한다(Bourdieu, 1994a).

아비투스는 사회화를 통해 후대에 전달되며 사회적 장의 문화와 규범으로 견고해 진다. 실천행동은 사회적 장 내에서 특정 위치를 점한 행위자의 아비투스를 투영하며 행위자는 이를 통해 자신을 사회적 장의 다른 공간에 속한 개인과 구별 짓는다(Bourdieu, 1994b). 아비투스는 무의식적 과정을 통해

행위자의 행동을 구속하기 때문에 사회적 장 내에서 행위자의 위치와 실천행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단초를 제공한다.

아비투스 이론은 행동을 경제적 이익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으로 상정한 공리주의와 차이를 보인다. 사회적 장에서 형성된 행위자의 아비투스는 내재된 합리적 준거를 포함하며 실천행동은 이 준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함으로써(Bonnewitz, 2000, 김천기, 2007 재인용) 실천행동이 기회와 물질적 이익을 중심에 둔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의 결과라는 주장을 초월한다. 더불어 사회적 장에서 형성되는 문화적 산물이 계급적 산물로 등치화될 수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마르크스의 사유 또한 극복하고자 했다(김천기, 2007).

시민됨은 시민이 수동적으로 부여받은 소속이나 정적인 상태를 속성으로 하지 않으며, 의지와 수행을 동반한 지향을 통해 '되어져 가는' 동적 과정이라는 관점을 담은 개념이다. 즉 시민됨은 시민을 최종의 상태로 지향해 가는 의식적 과정을 의미한다.

시민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상의한 결을 드러낸다. 홉스의 자연법 사상으로부터 시민은 도시거주라는 고전적 전제를 해체하고 인간이라는 조건만으로 평등한 권리를 인정받는 존재로 변환된다(홍윤기, 2002, 정병기, 2013 재인용). 홉스에 토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시민은 국가를 상대로 정치, 경제, 사회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시민공동체의 구성원을 의미한다(이동수, 2008; 홍윤기, 2002, 정병기, 2013 재인용).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시민됨은 시민으로 처우 받고 시민으로 복무하길 희망하는 행위자의 투쟁을 통해 형성되고 성숙한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에 뿌리를 둔 공론장의 참여와 공론장을 통한 투쟁이 하버마스의 시민관점에서 강조된다. 시민됨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하지만 원자화된 개인에 기반하지 않으며 공론 장의 참여를 통해 발아하고 성장한다고 본다(주선미, 2010).

공동체주의의 시민관은 집단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공동체 지향성을 강조한다.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시민됨은 행위자가 시민의 경계내로 편입되고 시민으로 인정됨을 궁극으로 하는 방어적 투쟁을 넘어 설 것을 요구한다. 차별과 억압의 대상에 대한 공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구체화 되는 '확대된 자아의식'으로의 성장이 시민됨의 요소로 강조된다(김동춘, 2013).

이와 같은 시민됨의 다양한 개념은 시민됨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로 시민덕목, 시민권리, 시민참여를 제안한다. "시민은 도덕적 신분이다"라는 바버(Barber, 1984)의 사유는 시민에게 기대되는 도덕적 준거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시민을 이기를 넘어 공공성을 담지하는 덕을 갖춘 개인으로 설명한 루소의 정의는 시민됨의 덕목이 공공성을 중심에 두고 있음을 가늠케 한다(박의경, 2011 재인용). 시민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개인의 안녕에 준거하는 것에서 확장해 다른 존재가 결부된 집단적 안위의 렌즈로 독해하는 덕을 지닐 것이 요구된다.

고대사회에서 시민은 공론의 장에서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자로 공론참여의 권리를 지녔다. 브르조아와 시민의 중복성이 강하던 시기에 시민은 세금을 납부할 경제력이 있는 자로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를 중시했다. 시민권의 발달을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으로 단계화한 마샬의 관점 또한 시민됨의 한 차원으로서 시민권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참여는 공론장의 논의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자를 시민으로 정의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 시민개념으로부터 강조된

다. 특히 루소는 시민을 결정짓는 요소로 사회적, 정치적 참여를 강조한다(박의경, 2011). 자발적 결사와 참여는 시민됨의 조건이며 시민됨을 방증하는 지표로 의미를 갖는다. 시민권리와 시민덕목이 인식적 차원, 시민됨의 영혼을 구성하는 것이라면 시민참여는 외형화된 시민됨, 시민됨의 신체이다.

### (3) 아비투스적 실천행동으로서 기부

브르디외의 장 이론과 아비투스에 의하면, 경제, 사회, 문화자본에 의해 결정된 시민사회 내에서 행위자의 위치는 시민으로서의 아비투스를 규정하고, 아비투스는 행위자의 실천행동을 결정한다(Bourdieu, 1994a).

시민사회는 시민다움 곧 시민됨의 문화와 규범을 규정하고 재생산한다. 시민으로서 행위자는 시민사회가 규정한 시민됨의 규범을 내재화하며 이에 준거해 행동하게 된다. 시민됨은 시민으로서의 권리 의식, 참여적 행위, 사익을 초월한 공공선 추구의 확대된 자의식을 발전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시민으로서 행위자는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시민의 덕을 성품으로 승화하고, 참여를 통해 이를 발현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 또는 시민다운 것으로 규정한다.

기부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기초한다. 경제적 이익과 상호교환성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이기 보다 공동체의 안위를 염두에 둔 공공선이라는 지향점을 갖는다. 기부는 특히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는 자의식의 확장을 전제로 한다. 그와 같은 점에서 기부는 시민으로서의 덕목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참여적 행위이다.

기부는 시민사회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질적 속성을 강화한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기부를 시민됨의 일부로 규범화하고 장려한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기부 문화를 전파한다. 시민의 정체성을 지닌 행위자는 기부를 시민다움의 일부로 학습하고 기부문화에 투항함으로써 시민의 정체성을 강화하게 된다. 시민은 기부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주요한 지표 또는 조건으로 내재화한다. 사회화를 통해 기부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지향되며 기부는 세대를 넘어 전승되고 지속된다. 이처럼 기부는 시민사회의 장에서 행위자의 무의식에 내재화된 아비투스가 발현된 실천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 2) 기부연구의 동향

기부를 주제로 한 그간의 연구는 '왜'와 '어떻게'를 중심으로 수렴된다. '어떻게'에 천착한 연구들은 기부행동의 양태, 즉 어떻게 기부하는가를 이해하려는 부류와 기부활성화, 즉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부류로 분리된다. 학문분야에 따라 '왜' 기부하는가를 읽어내는 방식은 선명한 시각 차이를 드러낸다. 경영학 분야는 상호교환성을 중심으로 '왜'에 답하고자 하며, 사회학 분야는 사회적 구조와 관계를 통해 이를 탐색한다. 한편 심리학은 내적 동기를 중심으로 왜 기부하는가의 주제를 탐색해 왔다. '왜'에 집중한 연구들은 기부행동의 결정요인은 지각반응의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조화 된다고 결론한다(Sargeant, 1999).

### (1) 지각반응의 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기부에 대한 지각반응의 외적 요인은 성별, 연령으로 대표되는 인구학적 배경, 소득과 직업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계층, 조직에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포함한 사회적 규범으로 범주화된다(Sargeant, 1999). 인구학적 특성과 기부행동 사이의 관계는 연구마다 상이한 결론을 제시하며 수렴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별의 경우, 성에 따라서 기부행동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과는 비교적 반복적으로 확인된 반면 어떤 성별이 기부행동에 적극적인가는 논쟁적인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남성이 기부에 적극적이며, 남성 기부자의 기부금 규모가 여성보다 크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나(Lyons and Passey, 2005) 여성의 기부수준이 남성보다 높다고 밝힌 연구 또한 일군을 이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부행동의 수준 또한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보건사회연구원, 2013)와 청년과 노년보다 중년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기부행동을 보여 연령과 기부행동은 비선형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김남숙, 2007)가 공존한다. 교육수준이 기부에 갖는 긍정적 영향은 선행연구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지된다(김자영·김두섭, 2013).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기부가능성이 높으며(이수에·이성태, 2009), 대졸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대졸 미만 학력자보다 기부충성도가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강철희 외, 2010).

사회적 계층 요인 중 소득이 기부에 미치는 영향 또한 선행연구 사이의 일관성이 높지 않다.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의 수준이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정수영, 2005; 황창순·강철희, 2002; Van Slyke and Brooks, 2005)와 함께 소득과 기부 사이에 의미 있는 영향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도 다수를 이룬다(Wiepking, 2005). 보다 극적으로, 후원활동에 참여하는 국내 기부자의 경제적 계층이 주로 중 이하에 속해 있으며(조소라, 1995), 소득 대비 기부금 규모가 소득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는 연구결과는 소득과 기부 사이의 역진적 연관성을 제시한다(강철희, 1998). 주관적으로 판단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또한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상황에 대해 긍정적 또는 낙관적으로 인식할수록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지배적이거나 경제적 상태와 기부가능성은 비선형적 관계를 갖는다는 주장도 공존한다(강철희 외, 2011).

사회적 계층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 또한 기부행동을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로 탐색되었다. 직업과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계층의식은 개인의 준거집단을 설정하게 하고, 개인은 준거집단의 행동양식을 지향함으로써 계층의식이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김자영·김두섭, 2013). 실제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하는 개인일수록 기부행동의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김자영·김두섭, 2013) 계층의식과 기부 사이의 유관성에 대한 이론적 논거는 경험적으로도 지지되고 있다.

조직과 자신의 운명을 하나로 인식하는 일체감 등의 사회적 규범은 기부와 유의한 연관을 보인다. 특히 대학 등 명망 있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기부는 대상 기관의 사회적 위치와 명망을 자신의 것으로 일체화 하려는 규범적 동기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다. 대학 스포츠팀과의 일체감이 졸업 후 대학의 후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장경로, 2004)는 조직에 대한 높은 일체감은 조직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 하게 하여 기부를 포함한 긍정적 행동양식을 촉진함을 시사한다(김용준·김주원, 2005).

사회적 자본의 한 형태인 사회적 신뢰는 정보공유 능력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증진한다(최혜지 외, 2015). 다수의 연구에서 사회에 대한 신뢰 또한 기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강철희 외, 2012).

## (2) 지각반응의 내적 요인

지각반응의 내적 요인은 기부의 심리 내적 동기를 의미한다. 내적 동기는 기부행동을 유발하는 심리적 엔진으로 강조된다. 기부의 내적 동기를 다룬 선행연구는 행복감, 인정감 등의 이기적 요인과 동정심, 도덕적 의무감 등의 이타적 요인을 중심으로 공전되어 왔다. 이기적인 내적 동기는 기부를 통해 어떤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에 기초하며 '이성적 가치에 대한 자기 지향적 표현이다'(김용준·김주원, 2005: 61). 이기적인 내적 동기는 기부의도는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나 기부만족감은 유의미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준·김주원, 2005).

행복감은 기부행동의 결과로 조명되며 동시에 기부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높고 행복한 사람일수록 기부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Bekkers, 2004 : 강철희 외, 2012 재인용). 국내 연구에서도 높은 행복감은 기부노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행복감과 기부사이의 정적인 연관성이 지지되었다(강철희 외, 2012).

이타적 행동을 사회에 대한 자기의 확장으로 조명하는 자기확장이론에 의하면(Allport, 1957 : 강철희 외, 2011 재인용) 순수한 이타심에 발로한 기부는 나의 경계를 넘어 나와 일체화된 사회를 향한 선행이다. 따라서 개인의 이타적 성향은 기부라는 사회를 대하는 개인의 행동양식에 의미 있는 결정력을 갖는다. 실증적 연구에서 이타적인 태도는 대학을 위한 기부의도와 기부만족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 이타적인 태도가 강할수록 대학에 대한 기부의도와 기부만족도 모두 증가했다(김용준, 김주원, 2005).

이타적 태도 중 이웃에 대한 동정심은 기부를 설명하는 가장 설명력 높은 요인으로 주목되어 왔다. 자선단체에 기부한 20세 이상 한국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부의 주된 동기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동정심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정에서 오는 피곤'으로 인해 동정심에 기댄 기부는 지속성에 한계를 보인다(김용준·김주원, 2005).

## 3) 연구모형

브르디외의 사회적 장과 아비투스, 그리고 시민됨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고찰과 기부관련 선행연구의 검토에 기반한 이 연구의 이론적 열개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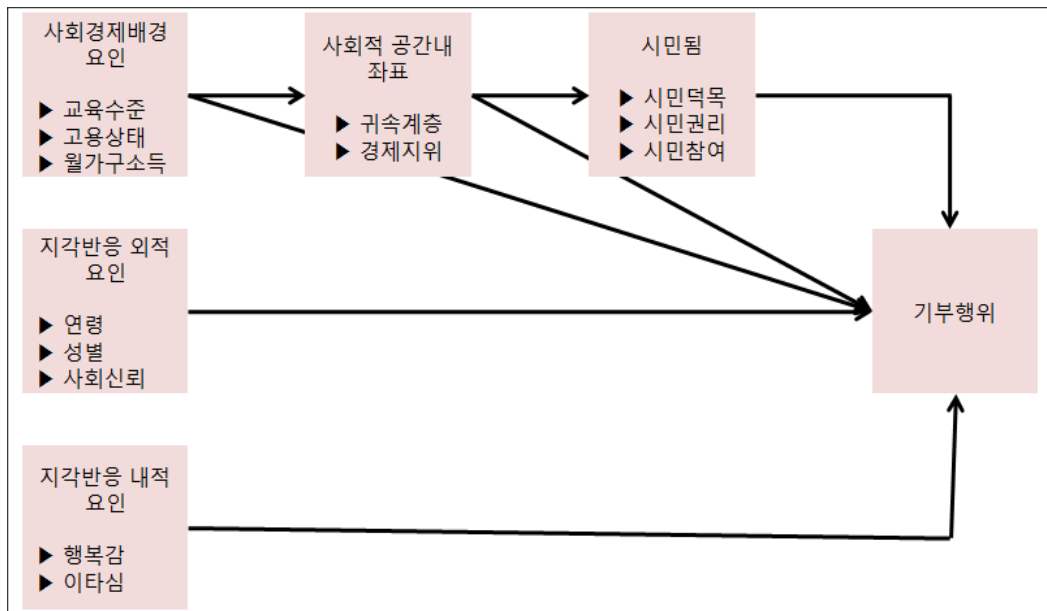
브르디외에 의하면 모든 실천행동은 경제, 사회, 문화자본의 결합체와 아비투스가 사회적 장에 더해진 결과이다. 즉 사회적 장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의 두 축이 교차하는 지위공간으로, 사회적 장 내의 위치에 따라 행위자는 지위에 적합한 아비투스를 형성하고, 아비투스는 실천행동을 구속한다.

브르디외의 사유에 근거해, 사회적 장인 시민사회에서 개인이 갖는 위치는 교육수준, 고용지위, 가



구소득에 의해 결정된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의해 좌표화된다고 가정했다. 시민사회에서의 위치는 타인과 사회를 향한 선함의 추구를 시민됨의 아비투스로 내재화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아비투스로서 시민됨의 수준은 아비투스가 발현된 실천행동으로서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화했다.

이 연구는 기부를 시민됨의 아비투스가 발현된 실천행동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하기 때문에 분석의 초점은 아비투스로서 시민됨이 기부라는 실천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히는데 있다. 따라서 시민됨 이외에 기부행동을 설명하는 요인들은 통제하고자 했다. 통제변인은 기부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들로 비교적 일관되게 검증된 인구학적 특성, 사회적 특성, 심리특성을 지각반응 외적 요인과 지각반응 내적 요인으로 구분해 설정했다.



〈그림 1〉 연구모형

### 3. 연구방법론

#### 1) 연구설계 및 분석자료

이 연구는 2011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원자료를 이용한 사회조사 연구로 설계되었다. 한국 종합사회조사는 한국인의 주요 가치 및 태도, 속성, 행동 방식, 일상생활 양태를 묻는 네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반복핵심 모듈은 매년 조사되며,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ISSP) 모듈은 세계사회조사프로그램에 가입된 45여개 회원국의 공동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East Asian Social

Survey(EASS) 모듈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공동 개발한 질문으로 구성되며 격년주기로 조사된다. 특별주제 모듈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특별주제를 매년 바꾸어가며 조사한다. 시민성과 기부에 관한 질문은 ISSP 모듈에 포함되며 2004년, 2011년, 2014년에 조사에 포함되었다. 2014년 조사가 가장 최근 자료이나 공공에 개방되지 않아 접근 가능한 최신 자료인 2011년 자료를 이용했다.

## 2) 표본 및 자료수집

한국종합사회조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며 다단계지역집락 표본 추출법(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을 통해 표집한다(KGSS 사업단,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서 2015년 8월 31일 내려 받음). 자료는 200여명의 훈련된 유급면접원이 응답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대면면접을 통해 수집한다. 2011년 조사는 1,526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 연구는 20세 이상의 남녀 1,484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 3) 측정도구

### (1) 기부행동

기부는 넓게는 재물, 시간, 노력, 재능 등 유무형의 소유물을 무상으로 나누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기부는 재물을 무상으로 나누는 행동으로 소극적으로 개념화되었다. 기부행동은 '나는 정부가 하는 것과 관계없이 자선적 이유로 돈을 기부하곤 한다'의 한 문항을 이용해 측정했다. 응답은 '매우 반대한다'에서 '매우 동의한다'의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했다.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기부행동을 의미한다.

### (2) 시민됨

#### ① 시민덕목

시민의 덕목은 시민과 사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세 개의 질문을 이용해 측정했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열 개의 질문을 통해 시민과 사회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으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이들 열 개 문항은 세 개의 공통요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공통요인 중 시민의 책임에 관한 공통요인에 적재된 세 개의 문항<sup>2)</sup>을 이용해 시민덕목을 측정했다. 응답은 '매우 반대한다'에서 '매우 동의한다'의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시민덕목을 의미한다. 세 문항의 신뢰도는 크론바 알파 계수가 0.63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2) 다음세대를 위해 이세상을 좋을 곳으로 물려주어야 한다.  
이세상은 책임감 있는 시민을 필요로 한다.  
서로 격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위험에 빠진다.

② 시민권리

시민권리의 인식은 ISSP 모듈에서 시민권리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여섯 개의 문항<sup>3)</sup>을 이용해 측정했다. 민주국가에서 개인이 지닌 다음의 권리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를 물었으며, 응답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매우 중요하다'의 리커트형 7점 척도로 측정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시민권리 의식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크론바 알파가 0.85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보였다.

③ 시민참여

시민참여는 선거와 집단적 행동에 참여한 경험 여부를 통해 측정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서명운동, 거리시위, 인터넷 글 올리기 참여 여부를 물어, 참여에 1점을, 비참여에 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수화했다. 신뢰도는 크론바 알파계수가 0.60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3) 통제 및 매개변수

귀속계층은 한국사회의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했을 경우, 응답자는 어디에 속한다는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이용해 측정했다. 경제적 지위는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응답자 가구의 소득은 어느 정도 높거나 또는 낮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을 이용해 측정했다. 평균보다 훨씬 낮다를 1로 평균보다 훨씬 높다를 5로 점수화 했으며 높은 점수는 높은 경제적 지위를 의미한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세금공제이전 모든 동거 및 비동거 가구원의 근로소득, 이자, 재산 및 임대소득과 연금, 각종 보조금, 사적 이전소득의 총합으로 측정했다. 사회적 신뢰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이용했으며, 매우 믿을 수 없다를 0점, 매우 믿을 수 있다를 10점으로 측정했다.

행복감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 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이용해 측정했다. 응답은 리커트형 7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정도의 행복감을 의미한다. 이타심은 응답자의 성격이 동정심이 많고 다정다감하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을 이용해 측정했다. 응답은 리커트형 7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이타심을 의미한다.

4) 분석방법

분석대상자의 특성, 주요변수의 기술적 정보는 기술분석을 통해 생산했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해 분석했다. 기술분석은 SAS, 구조방정식 모형은 AMOS 통계 패키지를 사용했다.

---

3) 국민이 적정생활유지  
 소수집단의 권리 존중과 보호  
 지위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것  
 국민의견 참작  
 공공정책 참여기회  
 불복종 운동에 참여

## 5) 분석대상자

1,483명 분석대상자의 44.5%(n=661)는 남성, 55.5%(n=823)는 여성이 차지했다. 연령은 최소 20세에서 최대 94세로 비교적 넓은 범주를 보였으며 평균 46.9세로 나타났다. 20대가 13.5%(n=200), 30대가 22.6%(n=336), 40대가 24.7%(n=366), 50대가 16.8%(n=249), 60대가 11.1%(n=192), 70대가 8.3%(n=123), 80대 이상이 3.1%(n=46)로 30대와 40대가 주를 이루었다. 교육적 수준은 무학, 서당 수학을 포함한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14%(n=208), 중학교 졸업이 7.8%(n=116), 고등학교 졸업이 29.1%(n=432),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이 49.1%(n=72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결혼상태는 기혼유배우자가 68.7%(n=1020)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사별이 10.0%(n=148), 이혼이 3.4%(n=51)로 나타났다.

## 4. 연구결과

### 1) 시민됨과 기부행동의 수준

시민덕목은 최소 8점에서 최대 15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13.34(sd=1.44)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덕목의 이론적 범주인 3에서 15의 90%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시민권리는 최소 6점에서 최대 42점의 넓은 범주를 보였으며, 평균 34.46(sd=6.6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시민참여는 최소 0에서 최대 4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1.17(sd=0.93)로 최대값의 25%에 불과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부행동의 정도는 평균 3.37로 나타났으며, 이는 분석대상자가 자선적인 이유로 비교적 돈을 기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 연구모형에 통제변수 또는 매개변수로 투입된 주요변수의 기술적 정보를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의 평균값은 399만원이며 최저소득 0원에서 최고소득 4,200만원의 넓은 분포를 보였다. 행복감은 최소 0점에서 최고 7점의 범주를 보였으며 평균 4.82로 비교적 무난히 값을 보였다. 이타심은 평균 5.0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0점에서 10점의 이론적 범주 중 평균 5.67로 조사되었다. 주관적으로 인지한 귀속적 계층은 최소 1에서 최고 10의 범주 중 평균 4.76으로 대부분 자신의 귀속계층을 중간정도로 상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과 비교한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는 평균 2.66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 약간 낮은 정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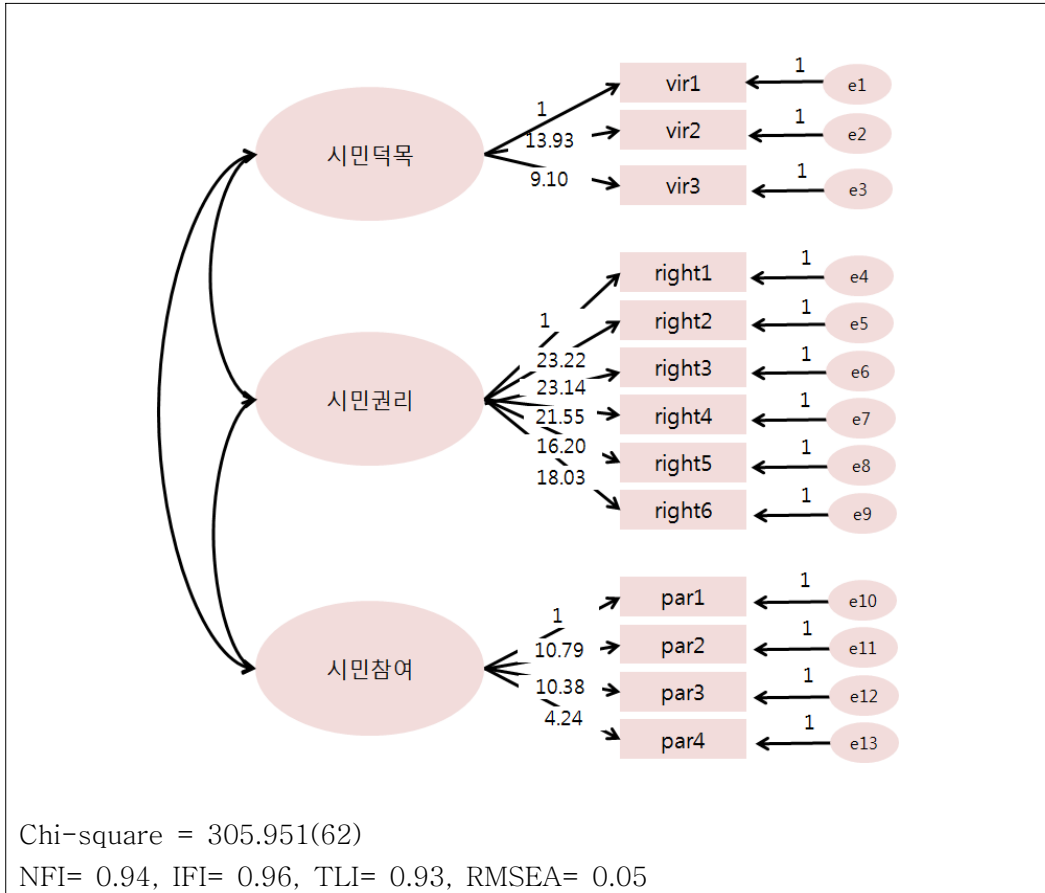
〈표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N	M(SD)	최소값	최대값
월평균소득(만원)	1365	399.51(356.94)	0	4200
행복감	1484	4.82(1.09)	1	7
이타심	1484	5.03(1.27)	1	7
사회신뢰	1480	5.67	0	10
귀속계층	1478	4.76(1.69)	1	10
경제지위	1469	2.66(0.97)	1	5
시민덕목	1483	13.34(1.44)	8.00	15.00
시민권리	1433	34.46(6.66)	6.00	42.00
시민참여	1484	1.17(0.93)	0.00	4.00
기부행동	1483	3.37(1.01)	1.00	5.00

## 2) 측정모형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세 개의 잠재변수인 시민덕목, 시민권리, 시민참여의 측정모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모형적합지수는 NFI가 0.94, IFI가 0.96, TLI가 0.93, RMSEA가 0.0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민덕목, 시민권리, 시민참여 등 시민됨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관찰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히 계측해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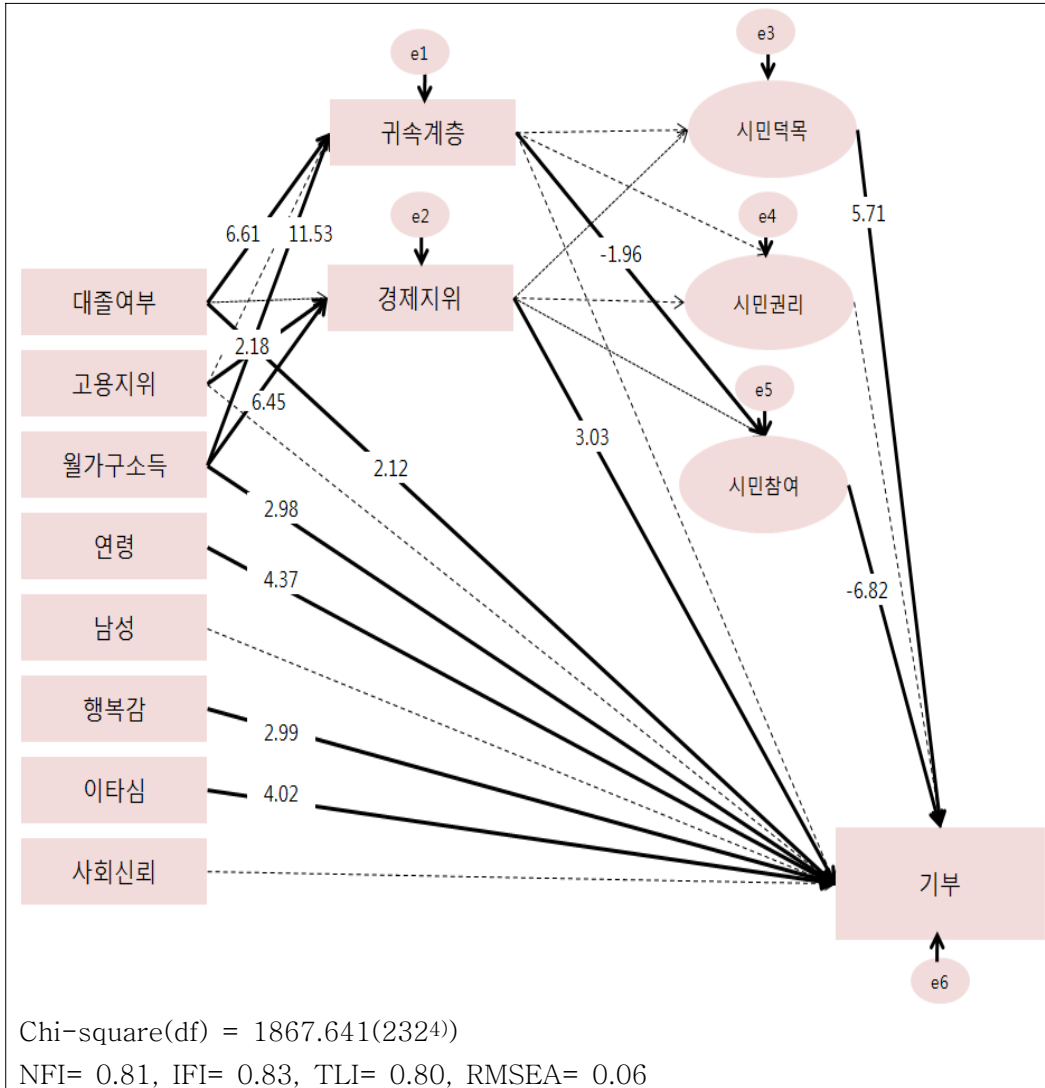
시민덕목을 구성하는 세 개 관찰변인, 시민권리를 구성하는 여섯 개 관찰변인, 시민참여를 구성하는 네 개 관찰변인의 요인계수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 모든 관찰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에 성공적으로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관찰변인의 다중자승상관계수(SMC)가 0.4 이상으로 적재된 잠재변인에 대한 설명력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시민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2010년 지방선거 참여여부만이 0.4 이하로 비교적 낮은 값을 보였으나 시민참여에서 정치적 참여행위가 갖는 이론적 중요성에 근거해 관찰변인으로 보유하기로 했다.



〈그림 2〉 측정모형의 적합도

### 3) 시민됨과 기부의 영향관계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제시된 구조모형의 모형적합지수는 NFI가 0.81, IFI가 0.83, TLI가 0.80, RMSEA가 0.06으로 비교적 무난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에 의해 좌표화된 시민됨의 수준이 기부를 유의미하게 결정한다는 구조모형의 논리적 열개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지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구조모형

시민됨과 기부행동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시민덕목은 기부행동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35$ ,  $cr=5.71$ ). 이는 시민사회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 등으로 대표되는 시민덕목이 높은 개인일수록 기부를 실천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시민권리는 기부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에 적정한 수

4) Modification indice에 기초해 대졸여부와 연령, 대졸여부와 월평균소득, 대졸여부와 시민참여의 오차항, 연령과 시민참여의 오차항, 행복과 시민참여의 오차항, 귀속계층의 오차항과 경제지위의 오차항 사이의 상관을 제약함에 따라 자유도가 232로 감소함

준의 생활유지를 요구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즉 시민으로서의 사회권과 참정권에 대한 의식의 정도는 기부라는 시민으로서의 실천행동과는 독립적임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시민됨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만을 의미하지 않으며(이동수, 2008) 권리로 형상화 된 사적 이익의 의미로 축소될 수 없다(주선미, 2010)는 논의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끝으로 시민참여는 기부행동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0.41$ ,  $cr=-6.82$ ). 이 결과는 선거참여, 거리시위, 서명운동 등 시민에게 기대되는 사회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기부를 실천하는 정도는 오히려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시민참여 행위를 통한 집단적 투쟁은 시민됨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참여정신이 시민됨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자기성찰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논의는(김동준, 2013) 시민참여가 기부의 실천행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 이유를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한다.

개인이 귀속된 계층에 대한 인식은 시민참여와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0.02$ ,  $cr=-1.96$ ). 이는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할수록 선거, 거리시위, 서명운동 등 시민활동에 대한 참여는 소극적임을 의미한다. 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경제적 지위는 시민덕목, 시민권리, 시민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 시민됨과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가 기부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지위의 영향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0.07$ ,  $cr=3.03$ ). 이는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할수록 기부행동의 수준은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면 자신의 속한 사회적 계층이 높거나 또는 낮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기부행동과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각반응 외적인 통제변인 중에는 연령, 대졸여부, 월평균 가구소득이 기부행동을 유의미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기부사이의 연관성은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나 이 연구에서 연령은 기부행동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연령이 높을수록 기부에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b=0.01$ ,  $cr=4.37$ ). 교육수준이 기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지되어 왔으며(김지영·김두섭, 2013), 이 연구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경우 기부행동의 수준도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b=0.12$ ,  $cr=2.12$ ).

경제적 수준과 기부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연구마다 다양한 결과를 제시해 왔으나 이 연구에서는 월평균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기부행동의 수준 또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00$ ,  $cr=2.98$ ).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기부를 유의미하게 설명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강철희 외, 2011)와 상대적 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기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이 연구의 결과는 소득의 객관적 규모보다 소득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기부에 미치는 영향이 의미 있음을 시사한다.

지각반응 내적인 통제변인인 행복감과 이타심은 기부행동을 유의미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은 기부행동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행복감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기부를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07$ ,  $cr=2.99$ ). 이기적인 심리내적 동기로 분류되는 행복감은 기부만족감(김용준·김주원, 2005) 및 기부노력(강철희 외, 2011)과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이타심 또한 기부행동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이타심이 높을수록 기부에 대한 실천의 정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b=0.08, cr=4.02$ ). 이타는 자기의 경계를 초월해 나 자신으로 일체화 된 사회에 대한 선행이고, 기부는 사회를 대하는 태도이므로 이타심은 기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갖는다(김용준·김주원, 2005).

〈표 2〉 구조모형 검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E	S.E.	C.R.
기부	시민됨	시민덕목		0.36	0.06	5.71***
		시민권리		0.02	0.03	0.72
		시민참여		-0.41	0.06	-6.82***
	사회공간 지위	귀속계층		0.03	0.02	1.53
		경제지위		0.07	0.02	3.03**
	지각외적 반응	연령		0.01	0.00	4.37***
		남성		-0.09	0.05	-1.81
		대졸여부		0.12	0.06	2.12*
		고용지위		0.02	0.02	1.13
		월가구소득		0.00	0.00	2.99*
		사회신뢰		0.01	0.01	0.50
	지각내적 반응	행복감		0.07	0.02	2.99***
		이타심		0.07	0.01	4.02***
	시민됨	시민덕목	사회공간 지위	귀속계층	0.00	0.01
경제지위				0.00	0.01	0.07
시민권리		사회공간 지위	귀속계층	0.01	0.01	0.60
		경제지위		-0.01	0.02	-0.66
시민참여		사회공간 지위	귀속계층	-0.02	0.00	-1.96*
		경제지위		-0.04	0.01	-0.30

p<.05\* P<.01\*\* P<.001\*\*\*

기부행동에 시민됨과 통제변인이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분석했다. 시민됨은 기부에 직접적인 효과만을 미쳐, 총효과의 크기는 직접효과의 크기와 동일하다. 시민됨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총효과는 시민덕목, 시민권리, 시민참여가 각각 0.365, 0.024, -0.406으로 시민참여가 기부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귀속된 사회적 지위가 기부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025, 시민덕목, 시민권리, 시민참여를 통한 간접효과는 0.007로 총효과는 0.032로 나타났다.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가 기부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효과가 0.073, 시민덕목, 시민권리, 시민참여를 통한 간접효과는 0.002로 총효과는 0.075로 나타났다.

지각반응 외적 통제변인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연령의 직접효과 및 총효과는

0.007, 남성의 직접효과 및 총효과는 -0.087로 나타났다. 대졸이상의 학력은 직접효과가 0.123,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통한 간접효과는 0.024로 총효과는 0.147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직접효과는 0.000,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통한 간접효과는 0.000으로 총효과는 0.000으로 나타났다. 고용지위의 직접효과는 0.020,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거친 간접효과는 -0.003으로 총효과는 0.017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뢰는 직접효과이자 총효과가 0.007로 분석되었다. 지각반응 내적 통제변인인 행복감의 직접효과이자 총효과는 0.069, 이타심의 직접효과이자 총효과는 0.076으로 나타났다.

〈표 3〉 기부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분해

	기부												
	연령	남성	대졸 여부	고용 지위	가구 소득	사회 신뢰	행복	이타심	귀속 계층	경제 지위	시민 덕목	시민 권리	시민 참여
총	.007	-.087	.147	.017	.000	.007	.069	.076	.032	.075	.365	.024	-.406
간접	.000	.000	.024	-.003	.000	.000	.000	.000	.007	.002	.000	.000	.000
직접	.007	-.087	.123	.020	.000	.007	.069	.076	.025	.073	.365	.024	-.406

## 5. 결론

이 연구는 부르디외의 사회적 장 이론과 아비투스 이론을 빌어, 시민됨을 시민사회라는 사회적 장의 아비투스로, 기부를 아비투스가 발현된 실천행동으로 가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첫째, 기부를 경제적 이익을 염두 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과의 결과로 조명한 공리주의적 해법에 도전하고 둘째, 기부자의 미시적 특성의 영향이 기부라는 사회적 실천행동에 굴절되어 나타나는 이유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했다.

선행연구에 근거해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으로 대변되는 지각반응 외적 요인과 이기 또는 이타심의 지각반응 내적 요인으로 구조화하고 이의 효과를 통제했다.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는 사회적 장 내에서의 위치를 결정하고, 사회적 행위자는 사회적 장 내의 위치에 종속된 아비투스를 구성한다는 사유에(Bourdieu, 1984, 1994a, 1994b) 토대해,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귀속지위에 의해 결정된 사회적 장으로서 시민사회의 좌표가 시민됨의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치고, 시민됨의 아비투스는 기부라는 실천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구조화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제시된 연구모형은 비교적 높은 정도의 모형 적합도를 보였다. 이는 부르디외의 사회적 장의 이론과 아비투스 이론을 프리즘으로 기부를 설명한 이 연구의 가정이 경험적으로도 지지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기부의 영향요인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지된 지각반응 외적 요인과 지각반응 내적 요인을 통제한 조건에서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에 의해 좌표화된 시민됨의 수준이 기부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결과는 기부가 행위자를 시민으로 규정하는 내재

화된 습속이 발현된 행동이며, 시민사회의 일부로 사회화된 정도에 따라 기부를 자기 공동체의 규범으로 내재화하고 자기 정체성의 일면으로 체화하는 정도가 결정됨을 경험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특히, 행위자가 기부를 실행에 옮길 것인가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준거인 월평균가구 소득,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 등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시민덕목, 시민참여가 기부를 실행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는 기부가 비용과 효과를 건준 합리적 판단의 결과로만 설명해 온 선행연구의 시각적 한계를 시사한다.

시민됨이 기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에 따라 행위자가 시민사회의 신념을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체화한 정도가 높을수록 기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신이 경계를 타인을 포함한 공동체로 확장하고 공동체의 이익과 선을 준거로 판단하는 시민으로 성숙된 개인에게는 자신의 확장된 경계인 시민사회를 향한 선한 행동인 기부를 자신을 구성하는 정체성의 일부로 습속화하고 있음을 증거한다.

그런데 시민덕목, 시민권리, 시민참여의 세 차원과 기부와의 영향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난 분석결과에 깊어 있는 이론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시민덕목, 시민권리, 시민참여는 측정모형의 높은 모형적합도를 통해 시민됨을 구성하는 하위차원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부와의 인과적 연계성은 서로 상충하는 방향으로 작동함에 따라 시민됨 각 차원의 속성에 따라 시민됨이 기부에 갖는 역동은 차이를 보였다.

시민덕목은 기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덕목은 자아의 경계가 공동체로 확장된 즉 확대된 자아로서의 공동체를 향한 선함에 맞닿은 시민됨의 일면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공존 지향의 실천행동인 기부와 정적인 연계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시민의식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원봉사에 적극적이라는 선행연구(박선하 외, 2015)는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과 공공의 선에 대한 지향성 사이의 정적 연계를 확인한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시민활동의 참여는 기부와 부적 연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시위, 선거참여 등에 적극적일수록 기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치적 행위의 공공성이 변질되었다는 지적으로부터 설명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한동우·최혜지, 2015). 전통적으로, 공론의 장에서 자기견해를 피력하고 공동체 쟁점에 참여하는 행위는 시민됨을 대리(proxy)하는 역량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는 사회참여 행위의 공공성을 전제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공론 장은 정치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고 대중은 공론 장에서 배제되었다. 대중 즉 시민의 사회참여 행위는 사적 집단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전략했으며, 사회참여 행위의 공공성은 와해되었다(한동우·최혜지, 2015). 시민의 사회참여 행위의 이와 같은 변곡 경로는 이 연구에서 시민참여가 오히려 기부라는 공공선의 지향과 역의 연계를 보인 기저를 설명할 수 있다.

시민권리는 기부와 의미 있는 수준에서 인과적 연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으로서 권리의식은 비시민으로부터 시민을 가려내는 시민의 핵심요소임에도 기부라는 사회적 실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결과는 시민됨을 이해할 때 시민유형 사이의 반목과 갈등에 대한 고려가 선택되어야 한다는(장은주 외, 2014) 통찰로부터 설명해 볼 수 있다. 국민국가를 향한 정부의도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작위된 관주도 시민은 정부가 부여한 역할에 충실히 복무한다(장은주 외, 2014). 이들

관주도 시민은 조세납부와 반대 급부로서의 권리에 집중하는, 다렌도르프의 '중속적 부르조아'의 속성이 강한 집단으로 적극적 시민과 대립된다. 시민의 권리의식은 관주도 시민의 특성을 드러내는 반면 기부는 공공성 지향이 강한 적극적 시민의 속성과 맞닿아 있다. 시민유형 사이의 이 같은 차이는 시민됨의 요소임에도 시민권리가 기부와 독립적인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시민됨을 시민사회라는 사회적 장의 아비투스로서, 기부를 아비투스가 발현된 실천행동으로 상정한 이 연구의 가정은 실증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를 통해, 기부는 경제자원의 보유량, 심리사회적 보상 등을 고려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공리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시사했다. 또한, 합리적 판단 요인이 기부에 미치는 영향은 기부를 자기정체성의 일부로 내재화한 아비투스 즉 문화적 습속에 의해 변곡될 수 있음을 규명하여, 기부를 위한 비용과 기부에 따른 보상이라는 기부선택의 합리적 판단이 기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굴절되는 나타나는 이유를 검증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개념적 엄밀성의 한계로 분석의 정확성이 도전 받기도 했다. 시민됨의 요소로 규정된 세 차원이 기부와 다른 방향의 역동을 보여 연구의 가정이 전적으로 지지되지 못했으며 이는 시민됨 개념화의 한계에 토대한 것으로 이해된다. 평등한 권리를 인정받은 존재를 시민으로 규정한 홉스(정병기, 2013 재인용)의 정의는 권리를 구심으로 본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시민관으로 분류된다. 반면 하버마스의 공론장적 시민은 정치적 참여와 공동체 지향을 중심으로 개념화된다(주선미, 2010). 시민덕목으로서 공공선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개념은 공동체주의 시민관에 근거한다. 이와 같이 시민됨의 하위요소를 통해 시민을 조망하는 다양한 관점을 포섭해 내려한 이 연구의 의도가 오히려 시민됨의 개념적 혼선을 야기함으로써 시민됨과 기부의 인과적 연합이 하위차원에 따라 비일관 되게 나타나는 문제를 야기했다. 이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 참고문헌

- 강철희, 1998,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과 그들의 후원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1-30.
- 강철희·김유나·조주희, 2010, "기부충성도를 지닌 인구집단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1): 205-234.
- 강철희·조승중·안성호, 2011, "저소득층의 기부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9: 88-120.
- 강철희·최명민·김수연, 2012,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2): 57-82.
- 고경환·이연희·김정현·오미애·강지원·진재현·함선유, 2015, 『나눔실태 2014』,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 김남숙, 2007, "기부활동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춘, 2013, "시민권과 시민성", 『서강인문논총』, 37: 5-46.
- 김용원 역, 2005, 『실천이성』, Bourdieu, P. 1994a, 서울: 동문선.
- 김용준·김주원, 2005, "대학기부자의 기부의도, 기부만족, 기부정기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마케팅연구』, 20(4): 57-89.

- 김자영·김두섭, 2013,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사본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3(2): 401-430.
- 김천기, 2007, “부르디외의 장과 아비투스 이론의 적용가능성과 난점”, 『교육사회학연구』, 17(3): 79-99.
- 박선하·박신혜·이희영, 2015, “성남시 고등학생들의 봉사 및 기부와 민주시민의식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5): 95-306.
- 박의경, 2011, “대중에서 시민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5): 81-100. 보건사회연구원, 2013, www.kihasa.re.kr.
- 서관모, 2001, “한국의 시민사회 담론의 문제점들”, 『사회과학연구』, 18(2): 99-117.
- 신미경 역, 2004, 『사회학의 문제들』, Bourdieu, P. 1984, 서울: 동문선.
- 이동수, 2008, “지구화 시대 시민과 시민권”, 『한국정치학회보』, 42(2): 5-23.
- 이수애·이성태, 2009, “개인의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기관 신뢰와 몰입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3): 69-95.
- 이용규·송용찬, 2012,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보』, 9: 189-211.
- 장은주·정상호·신진욱·이병철·이양수·조홍식·박영선·정태석·홍윤기·전상직·이담인, 2014, “시민의 탄생과 진화”, 『시민과 세계』, 24: 276-310.
- 주선미, 2010, “공론장 이론을 통한 시민성 연구”, 『사회과교육』, 6: 171-183
- 정병기, 2013, “한국 시민운동의 흐름과 시민성”, 『진보평론』, 55: 14-31.
- 조소라, 1995, “사회복지기관 후원자들의 후원행위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종철 역, 2005, 『구별짓기 상권』, Bourdieu, P. 1994b, 서울: 새물결.
- 최혜지·이소영·정순돌, 2015,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우울의 최적모형 탐색과 영향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2)』, 149-175.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available at: www.kossda.or.kr.
- 한동우·최혜지, 2015, “복지국가는 사적공간을 어떻게 식민화 하는가?”, 『한국사회복지학』, 67(2): 161-181.
- 홍윤기, 2002, “시민민주주의론”, 『시민과 사회』, 1: 15-37.
- 황창순, 강철희, 2002,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1(2): 33-73.
- Bekkers, R. 2004,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Netherlands*. The Netherlands: Utrecht University.
- Lyons, M., & Passey, A., 2005, *Giving Australia: Research on Philanthropy in Australia*, Sydney: University of Technology.
- Sargeant, A., 1999, “Charitable Giving: Towards a Model of Donor Behaviour”,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15(4): 215-238.
- Van Slyke, D. M., and Brooks, A. C., 2005, “Why Do People Give? New Evidence and Strategies for Nonprofit Managers”,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5(3): 199-222.
- Wiepking, P., 2005, “The Philanthropic Poor: In Search of Explanations for the Relative Generosity of Lower Income Households”, Working Paper, Vrije Universiteit.

## Giving -Habitus of Citizen-

Choe Hyeji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was developed from the idea that giving has been interpreted exclusively as a social selection based on reasonal thinking. The purpose of the presented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hypothesis that giving was a habitus of citizen, based on Bourdieu theory of social setting and habitus. For that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secondary data from KGSS 2011 through SEM. Result revealed that the goodness of fit for the proposed structural model was high. Also, level of virtue as civizen and social participation as citizen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evel of giving, supporting the hypothesis that giving was a hibitus of citizen.

Key words : giving citizen habitus Bourdieu

[논문 접수일 : 15. 12. 15, 심사일 : 15. 12. 23, 게재 확정일 : 16. 01. 22]